

金元四大家의 婦人科疾病 認識에 대한 研究

尹憲重 · 金容辰*

關於金元四大家之婦人科疾病觀點的研究

尹憲重 · 金容辰

大田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醫史學專攻

把金元四大家對婦人科疾病的認識，可以歸納為如下。

劉完素主以寒涼藥辨治月經病，以濕熱病機論述帶下病，活用了清熱除濕法，並以潤燥通滯法治療了妊娠病，兼用寒溫法治療了產後病。張從正在婦人科疾病的治療上，以祛邪為目的，強調了吐法及下法的應用，並在臨床上非常重視了治療技術的獨創性使用。他提倡“養生當論食補，治病當論藥攻”的觀點，善於使用食補，以食補及藥物治療了疾病。李杲以為崩漏的病機是脾胃虛損及氣血下脫，而主要使用升陽除濕湯，益胃升陽湯，升陽舉經湯及涼血地黃湯，並以為白帶的病機是陽虛寒濕。因而他的調補脾胃，益氣升提法廣範地應用於後世婦人科疾病的治療上。這些不僅應用於氣虛崩漏及陽虛白帶，而且還多用於由脾胃氣虛及氣虛不攝引起的月經不調，月經前後諸證，妊娠轉胞，產後發熱，惡露不絕，陰挺等各種病證上。朱震亨強調了陰血易虧，反對在胎前及產後濫用辛溫香燥的方藥，並重視血虧和虛熱在妊娠病及產後病中所起到的病機作用。他在重視月經病的辨證治療的同時，又強調了痰濕為引起婦人科疾病的病因，為後世產生了極大的影響。

I. 緒 論

醫學史는 醫學의 起源, 形成, 發展過程과 發展規律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自然科學史의 일종에 속하며, 社會經濟의 발전 및 각 民族의 일반 文化史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 醫學史의 의의는 內的으로는 醫學의 淵源을 소급, 추구하고 醫學의 理論과 醫療技術의 변천과정을 究明하여 오늘의 醫學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醫學의 未來를 豫見하고, 外的으로는 醫學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思想 등과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²⁾. 醫學史 범주에

서의 疾病史는 당연히 인류와 疾病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東洋醫學에서 疾病史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 이전 이에 대한 研究論文이 발표된 이래 193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論文들은 許龍善의 '瘧疾發現史略', 嚴家新, 潘南勝의 '狂犬病流行簡史' 등이 있으니 이들은 제한되어진 疾病의 틀 속에서 이를 研究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疾病史에 관한 일반적인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930년대 이전에는 流行과 病原의 정황을 위주로 논술하였으니 廣海의 '流行性感冒之歷史의 研究', 黃勝白의 '霍亂의 歷史' 등이며, 그 후 疾病史에 관한 論文은 症狀과 治療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니 流行情況을 중점적으로 論述한 것으로는 伍連德의 '中國之鼠疫病史'가 있고, 流行情況과 診斷治療를 겸하여 論述한 것으로

*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의사학전공

1)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3.

2) 金斗鍾: 東西醫學史大綱·序論, 서울, 探求堂, 199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는 陳邦賢의 ‘瘡疾史’, 宋大人の ‘中國消化器病史概說’ 등이 있으며, 病因病機, 診斷治療를 증점적으로 논술한 것으로는 李濤의 ‘我國瘡疾考’, 湯慕殷의 ‘脚氣病考’ 등이 있다. 1950년대 이후의 疾病史 연구는 현저하게 病名, 病因, 病理, 病候, 診斷, 治療, 流行學 등의 7개 항목의 내용을 증점적으로 논술하였으니 任應秋의 ‘百日咳疾病史略’, 程之范의 ‘我國梅毒病的歷史’, 蔡景峰的 ‘麻疹史述要’, 李經緯의 ‘傳染性肝炎史述要’ 등이다³⁾.

이처럼 醫學史 중 疾病史에 관한 研究는 비교적 많지 않으며, 특히 동양의학의 婦人科 疾病史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東洋醫學에서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宋代에는 婦人科가 이미 臨床經驗의 축적을 통하여 하나의 독립된 專門科로 발전하였다. 婦人科는 古代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醫家들의 노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이론체계가 형성되었으며, 풍부한 治療經驗도 축적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婦人科 疾病을 치료하는데 나름대로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기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婦人科 疾病史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婦人科 疾病 인식에 대한 역사적인 原貌와 발전과정을 재현하며, 이를 기초로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대한 발전규율을 탐구하는 것은 婦人科 疾病의 理論 研究, 臨床 研究 및 서로 관련 있는 醫學史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婦人科가 세계로 뻗어가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著者は 전쟁이 빈발하고 疾病이 유행하여 당시 醫家들이 前代의 醫學成就를 기초로 여러 가지 독특한 견해를 지닌 醫學理論과 治療方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으며⁴⁾, 각자의 臨床經驗이 不同하고 觀點이 부동하였던 까닭에 醫學流波를 출현하게 만들었던⁵⁾ 金元時代의 婦人科 疾病史를 고찰

하고자 당시 醫學流波의 대표적 醫家였던 金元四大家 즉 劉完素, 李杲, 張從正, 朱震亨 등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던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대한 金元時代 醫家들의 공헌

金元時代는 의학 발전에 있어 상당히 특수한 시기로 清代 『四庫全書提要』에서는 “儒之門戶分於宋 醫家之門戶分於金元”이라 하여 이 시기에 醫學의 영역에서 각각 특색 있는 學術派들이 나타났으며, 학파간의 논쟁이 공전의 활약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醫學界의 혁신을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갔으며, 東洋醫學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金元時代 醫學學派의 논쟁 중 가장 대표적인 醫家는 후세에서 ‘金元四大家’라 칭송하는 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서로 다른 관찰 시각으로 서로 다른 臨床實踐을 통하여 前人의 醫學理論에 대해 서로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당시 疾病 防治의 문제에 대해 다채로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였다. 당시 일련의 醫家들이 古方을 준수하던 의학 풍조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견해와 경험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운이라 의심할 수 없으며, 東洋醫學의 발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 수 있다.

金元四大家는 스스로 醫學을 배우거나 혹은 儒學者에게서 醫學을 배웠지만 모두 臨床 實踐經驗이 풍부한 民間醫家였으며, 그들은 비록 婦人科만을 專攻한 醫家는 아니었지만 그들 醫術은 臨床各科에까지 미쳤다. 婦人科 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대하여 그들은 또한 각자의 學術思想과 臨床經驗에서 출발하여 많고 귀한 새로운 觀點을 제시하였으니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의 寶庫가 더욱 풍부하여졌고, 또한 婦人科 臨床疾病을 防治하는 수준을 끌어 올렸다. 婦人科 疾病의 인식에 있어 일련의 중요한 理論 觀點 및 治療方法은 金元時代

3) 張志斌 : 古代中醫婦產科疾病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p. 3~4.

4) 楊醫亞 : 中國醫學史,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 86.

5) 楊醫亞 : 中國醫學史,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 86.

醫家들이 제창하여 세상에 전해졌으니 白帶病의 濕熱病機 및 상응하는 清熱除濕治帶法이나 不孕症의 痰濕病機 및 이에 상응하는 開鬱種子法 및 기계를 이용하여 死胎를 취하는 기술 등과 같은 것은 모두 金元時代 醫家의 지혜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른 바 金元時代 醫家의 理論과 實踐을 말하자면 金元時代 婦人科 疾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으며, 明清時代 婦人科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劉完素

劉完素가 살던 때는 戰火가 계속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편안하지 않았으며, 여러 해 동안 유행하던 疫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반 醫師들은 局方을 고집하여 溫燥藥을 남용한 결과 많은 폐단을 유발하였으니 劉完素는 理論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學術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는 『內經』의 理論과 당시 성행하던 運氣學說을 서로 결합하여 『素問·至真要大論』에서 來源한 ‘病機十九條’ 중 火熱이 病이 된다는 病機에 대해 演繹을 가함으로써 火熱病證의 범위를 더욱 넓게 확대하여 ‘火熱論’의 學術主張을 제시하였다. 그는 外感病은 六氣 가운데 주로 火와 熱 두 가지가 病因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다른 四氣 또한 火熱로 轉化할 수 있거나 혹은 火熱로 인하여 化生한다고 하였다. 內傷病과 관련하여서는 ‘五志所傷皆熱也’라 하여 熱이 主因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까닭에 治療에 있어서도 劉完素는 燥熱한 약을 過用하는 것에 반대하고 寒涼藥을 多用하였다.

劉完素의 저서 중 婦人科 疾病의 論述과 관련하여서는 月經病, 帶下病, 產前病, 產時病, 產後病과 같은 여러 방면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婦人科 疾病의 論述에 대해서도 火熱論의 심각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1) 寒涼藥으로써 月經病을 辨治함

劉完素는 각기 다른 연령의 婦女는 각기 다른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婦人童

幼, 天癸未行之間, 皆屬少陰, 天癸既行, 皆從厥陰論之; 天癸已絕, 乃屬太陰經也⁶⁾.”고 하였다. 劉完素는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있어 天癸가 이미 行한 育齡期 婦女의 治療는 모두 血臟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厥陰論治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天癸가 아직 行하기 전의 女性 및 天癸가 이미 絶한 후의 病證은 婦人科 疾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劉完素의 著書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論述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러한 관점은 후세의 婦人科 醫家들이 중시하는 바가 되었다. 劉完素가 명확하게 火熱病機의 理論을 제시하여 論述한 婦人科 疾病은 閉經이다. 그는 『宣明論方』에서 “婦人月水一月一來如期, 謂之月信. 其不來, 則風熱傷于經血, 故血在內不通; 或胃受邪熱, 脾胃虛損, 不能飲食, 食既不克, 食衝凝滯⁷⁾.”이라 하였으며,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如女子不月, 先瀉心火, 血自下也⁸⁾.”라는 治療原則을 제시하였다. 그의 著書로부터 살펴보면 閉經을 치료하는 두 개의 方劑가 있으니 하나는 沒藥丹이고 다른 하나는 二氣丹이다. 前者는 牽牛子 二兩, 大黃, 當歸 各一兩, 沒藥, 輕粉 各一錢, 官桂 一分으로 구성되어 있고, 後者는 大黃 四兩, 當歸, 白芍藥 各二兩으로 구성되어 있다. 藥性이 寒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瀉火通經하는 方劑인 것이다.

비록 다른 月經病의 病因과 病機에 대해서는 理論의 論述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宣明論方』의 月經病을 治療하는 用藥을 살펴보면 모두 寒涼 위주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月經過多를 治療하는 경우 當歸龍骨丸을 사용하는데 處方에는 黃連, 黃柏을 사용하였고, 痛經을 治療하는 경우 增損四物湯을 사용하는데 四物湯에 白朮, 丹皮, 地骨皮를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崩漏를 치료하는 경우 伏龍肝散을 사용하는데 이 처방에는 地榆, 刺薊根 및 青竹茹를 사용하였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四物湯에 加減하여 月經病을 治療하지

6) 劉完素 :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157.

7) 劉完素 : 黃帝素問宣明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89.

8) 劉完素 :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161.

만 加하는 藥이 모두 寒涼한 藥이 위주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少腹痛에는 四物湯에 玄參, 苦楝을 加하고, 經水暴多에는 四物湯에 黃芩을 加하며, 腹痛은 단지 黃連만 加하고, 夏月에 사용할 때는 黃連, 黃芩을 加하며, 단순한 經水過多에는 四物湯에 黃芩, 白朮을 加하고, 經水가 黑豆汁과 같은 경우는 黃連, 黃芩을 加하며, 經水가 적으면서 血色이 和할 때는 四物湯에 熟地黃, 當歸를 加하고, 經前腹痛은 四物湯에 玄胡, 苦楝子, 檳榔, 木香을 加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劉完素는 대체로 寒涼藥으로 婦女의 月經病을 治療하였지만 그는 寒涼한 病邪가 婦人科 疾病에 있어 致病作用을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 溫熱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였다. 예를 들면 不孕病機를 論述하면서 劉完素는 인식하기를 이는 大腸이 虛寒하여 下利하는 것이 關元으로 유입하여 子臟을 冷虛勞損케 함으로써 不孕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二氣丹을 사용하여 閉經을 治療하면서 加減할 때 官桂二錢을 加味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四物湯으로 婦人의 血積을 治療할 때 莪朮, 肉桂를 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비록 寒涼藥을 즐겨 사용하였지만 寒涼藥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濕熱病機로써 帶下病을 論함

白帶의 病因에 대하여 『諸病源候論』에서 帶下病은 “冷則多白, 熱則多赤”의 說을 제시한 이래, 대대로 계속되어 오래도록 변하지 않아 白帶는 寒으로 因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劉完素는 이에 대해 의심을 품고 『素問玄機原病式』에서 “舉世皆言白帶下爲寒者, 誤也9)”라고 하였다. 그는 白帶와 赤帶가 단지 “赤者, 熱入小腸; 白者, 熱入大腸”인 점이 다르다고 하면서 “原其本也, 皆濕熱結于脈, 故津液涌溢, 是爲赤白帶下10)”라고 하여 처음으로 白帶病의 濕熱病機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理論을 기초로 하여 劉完素는 辛熱

한 藥으로 白帶病을 治療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니 그는 인식하기를 鬱結熱聚하면 舊病이 轉加하니 이는 곧 오래도록 流傳하여 생긴 잘못이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白帶病의 治療에 대해 劉完素는 清熱除濕하여 治療하는 法을 제시하면서 “熱去濕除, 其病自愈.”한다 하였으며, 구체적인 方藥의 사용에 대하여 劉完素는 熱이 重할 때는 먼저 十棗湯으로 下한 후 다시 苦楝丸으로 調治한다고 하였다. 前者는 大戟, 芫花, 甘遂 三味の 峻下逐水하는 藥을 等分하고 大棗를 加하여 구성된 것이며, 後者는 苦楝, 茴香, 當歸를 等分하여 구성한 것이다. 『宜明論方』에서는 海蛤丸이라는 하나의 處方을 제시하였으니 위 두 가지 處方을 하나의 處方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3) 潤燥通滯함으로써 妊娠病을 治療함.

劉完素는 妊娠時에는 血液이 虛衰하고 榮衛가 宜通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常服養液潤燥, 開通結滯, 令血昌盛11)”이라고 인식하였다. 妊娠病 중 養液潤燥하여 常服할 수 있는 것은 當歸, 川芎, 地黃, 黃芩이며, 開通結滯하여 常服할 수 있는 것은 枳殼, 白朮이다. 常用하는 藥物은 흔히 집중된 것이 아니니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劉完素가 妊娠病을 治療하면서 사용한 方劑의 대다수는 藥味가 적고 매우 平和로써 다른 婦人科 疾病에 사용된 方劑와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 예를 들어 胎動不安을 治療하는 黃芩湯은 白朮, 黃芩을 等分하여 粉末한 것이고, 子腫脹滿을 治療하는 枳殼湯은 枳殼三, 黃芩一, 白朮一을 粉末한 것이며, 胎漏를 治療하는 데는 二黃散과 枳殼湯을 사용하는데 前者는 生地黃, 熟地黃을 等分하여 粉末한 것이고, 後者는 枳殼一, 黃芩一, 白朮二를 散으로 만들어 煎服하는 것이다. 妊娠腹痛에는 當歸地黃湯을 사용하는데 當歸一, 熟地黃二를 煎服하고, 產前에 胎不動한데 下墜하는 것을 治療하는 데는 立效散을 사용하는데 當歸, 川芎을 等分하여 粉末로 만든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종류들은 藥味가 대체로 2~3味로 모두 常用할 수 있는 平淡한 것

9)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21.

10) 劉完素 : 黃帝素問宜明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89.

11) 劉完素 : 黃帝素問宜明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89.

이니 養血理氣, 潤燥通滯, 保護胎元하는 의미가 있어 절대로 燥烈하게 될 염려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養血潤燥, 開通結滯하는 原則은 保全活胎할 뿐만 아니라 또한 死胎를 제거하는데도 사용되었다. 劉完素는 “産婦胎死不下者, 風熱燥濕緊斂, 則産戶不得自然開通也.”라고 인식하였으므로 “慎不可用銀粉, 巴豆大毒燥熱丸藥下之, 反生燥熱而耗其陰液也¹²⁾.”라하여 三一承氣湯을 제시하였으니 方中에 大承氣湯으로 開通結滯하며, 甘草를 加하여 緩急潤燥케 함으로써 産戶를 開通하고 燥熱이 生하지 않도록 하였다. 劉完素는 難産, 胞衣不下와 같은 類의 分娩時 나타나는 病證을 治療하는 方藥을 産間方이라 칭하였으니 用藥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있었다. 먼저 四物湯으로 養血潤燥하고, 다음에 半夏湯으로 活血通下하였으며, 效果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下胎丸으로 化積下胎하였다. 이를 보면 潤燥通滯의 原則에 매우 주의할 기을 엿볼 수 있다. 劉完素의 下胎하는 用藥 특징은 半夏로써 下胎藥을 삼은 것이니 下胎丸은 生半夏, 白斂 各半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半夏가 傷胎한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지만 도리어 去胎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4) 寒溫을 병용함으로써 産後病을 治療함.

劉完素는 寒涼藥을 善用하였지만 寒涼藥의 특징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니 産後病의 治療 중 淋漓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우선 먼저 劉完素는 “産理多門, 故同傷寒壞證”이라 하였으니 당연히 “外則和于榮衛, 內則調于清便”의 原則을 세워 비록 寒熱이 있더라도 三禁을 범하지 않았다. 三禁이란 “不可汗, 不可下, 不可利小便. 發汗者, 同傷寒下早之證; 利大便, 則脈數而已動于脾; 利小便, 則內亡津液, 胃中枯燥.”한 것으로 産後雜病의 治療는 四物湯에 加減하여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産後의 일반적인 正황에 들어맞는 것이니 예외에 대해서 劉完素는 또한 “凡産後暴病, 禁犯不可拘也, 如産後熱入血室者, 桃仁承氣, 抵當湯之類是也; 胃堅燥者, 大承氣不可以泄藥言

之¹³⁾.”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治療에 대하여 劉完素는 또한 실제 상황에 근거한 辨證用藥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産後惡露不盡에는 涼膈散과 四物湯의 合煎함으로써 調理經血하였으며, 심한 자는 大承氣湯合四物湯으로 瀉中有補하였다. 産後外感은 小柴胡湯에 黃芩, 石膏, 黃芪를 加한 增損承氣湯이나 혹은 蒼朮, 防風, 當歸, 羌活로 구성된 防風湯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風寒風熱에 따라 분명히 하였다. 産後腹痛이 寒하여 血氣가 塊硬한 경우에 속하는 것은 辰砂大紅丸을 사용하니 이 處方은 附子, 肉桂, 薑黃, 肉蓯蓉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溫熱한 藥으로써 祛寒하며, 瘀熱이 內阻한 경우에 속하는 것은 黑白散을 사용하니 이 處方은 寒水石, 烏金石을 等分한 것이고, 오직 疼痛이 不止하는 것은 四物湯에 玄胡索을 加하여 活血止痛케 하였다. 産後虛羸에 있어 寒하면 十全散을 사용하는데 四君子湯에 黃芪, 肉桂를 加한 것이고, 熱에는 三元湯을 사용하니 四物湯에 小柴胡湯을 加한 것이며, 寒熱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當歸人參散을 사용하니 四君四物에 地黃을 去하고 官桂, 黃芩, 大黃, 厚朴, 枳殼, 陳皮를 加한 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産後病의 治療로부터 살펴보면 劉完素는 産後病을 治療하는데 있어 溫熱藥을 적게 사용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張從正

張從正과 劉完素는 동일한 時代에 속한 醫家로 張從正은 劉完素보다 늦은 시기에 활동하여 劉完素의 醫學成就를 매우 흠모하였다. 張從正은 劉完素의 學問을 개인적으로 배웠지만 寒涼藥을 用藥하는 要旨를 깊이 있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혁신적인 사상의 영향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 자신 스스로 옛것을 존중하되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중시하면서 또한 장점을 널리 취하는 연구 풍토를 이루게 한 것이다. 張從正은 “夫病一物, 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先論

12) 劉完素 : 傷寒直格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263.

13) 劉完素 :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158.

攻其邪, 邪去而元氣自復¹⁴⁾.”이라고 인식하였다. 病은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니 반드시 신체에서 驅出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니 張從正은 病을 治療함에 있어 汗, 吐, 下 三法으로써 攻邪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여 邪氣가 벗어나게 하였다. 당연히 張從正의 攻邪하는 三法은 단순히 發汗, 催吐, 瀉下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治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대체로 發表解毒하는 治法은 모두 汗法에 속하고, 上行하는 작용을 하는 治法은 모두 吐法에 속하며, 下行하는 작용을 하는 治法은 모두 下法에 속하는 것이다.

張從正은 또한 婦人科 疾病에 대해서도 많은 論述을 하였으니 가장 특징적인 것은 婦人科 疾病을 治療하는 과정에 吐法과 下法을 서로 결합하여 응용한 것이었으며, 그가 응용하였던 治療技術 및 飲食療法 또한 오묘한 뜻을 갖추고 있다. 주의 기울여볼 만한 것은 張從正이 死胎를 처리한 하나의 醫案이니 이는 婦人科 歷史上 가장 이른 碎胎術에 대한 一例의 기재라 할 수 있다.

1) 婦人科 疾病의 治療 중 吐下法의 응용

攻邪는 張從正이 吐法과 下法을 즐겨 운용하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婦人科 疾病의 이해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張從正은 婦人科 疾病을 治療할 때 吐法과 下法의 응용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이 두 방법을 결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였으니 그 목적 또한 祛邪하여 病을 治療하고자 함이었다. 張從正이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吐法과 下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첫째, 適應症이 비교적 커서 經, 帶, 婦人科 雜病 및 흔히 쉽게 치유되지 않는 頑疾까지도 미치고 있다. 둘째 治療의 절차는 모두 吐法이 첫 번째이고 下法은 두 번째이다. 셋째, 涌吐 및 瀉下한 후에는 어느 정도 다른 治法을 배합하였으니 혹은 清法이나 혹은 補法 등이다. 이제 吐下法을 여러 不同한 疾病에 응용한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帶下病

이 법을 사용하여 帶下病을 治療하는 理論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의거한다. 첫째, 張從正은 劉完素의 理論을 받아들여 赤白을 막론하고 모두 濕熱病機로 帶下를 논하였으니 당연히 “治濕治瀉法治之”라고 인식하였다. 둘째, 이미 濕熱이 病이 된다고 하여 “夫水自高而趨下, 宜先絕其上源¹⁵⁾”이라 하였으므로 張從正은 帶下病의 治療를 주로 세 가지 순서로 구분하였으니 먼저 獨聖散(즉 單味瓜蒂散)이나 혹은 茶調散(즉 瓜蒂, 好茶를 粉末로 함)으로 涌吐하여 痰涎이 吐出되기를 기다린 후 다시 導水丸, 異功散 등으로 水積을 瀉下하니 前者는 大黃, 黃芩, 滑石, 黑牽牛로 구성되어 있고, 後者는 黑牽牛, 茴香, 木香으로 구성되어 있다. 吐瀉한 후에는 다시 病情의 重新에 의한 辨證에 근거하여 때로는 寒涼으로써 清熱하고 때로는 淡滲으로써 利濕하며 혹은 食養으로써 扶正하여 철저히 治療하였다. 張從正의 저서 중에 기재된 두 가지 病案을 살펴보면 모두 매우 의미 있는 훌륭한 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閉經

吐瀉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閉經을 治療한 것은 대담한 시도로 확실히 호방하여 엄매이지 않는 張從正이 아니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虛勞經閉과 같은 경우 역대 이래로 虛로써 理論을 세우고 補하여 治療하였다. 張從正은 인식하기를 “女子不月, 皆由使內太過……惟深知涌泄之法者能治之¹⁶⁾.”라고 하였으니 그의 理論은 『素問·陰陽別論』의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¹⁷⁾.” 및 『素問·評熱病論』에서 말하는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而絡于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¹⁸⁾.”에서부터 근거한 것으로 張從正은 胞脈은 心에 속하고, 心은 본래 火에 속하며 血을 主하는데 心이 積熱을

14)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388~389.

15)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442.

16)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395.

17)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53.

18)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96.

받게 되면 血이 유통하지 않아 女子不月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宜抑火升水, 流濕潤燥, 開胃進食¹⁹⁾”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吐瀉를 결합한 법으로 “濕水上下皆去, 血氣自行周流. 月事不爲水濕所隔, 自依期而至矣²⁰⁾.”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구체적인 治療는 앞의 두 가지와 帶下病을 治療하는 것은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吐瀉한 후에는 다시 虛實을 살펴 理氣나 活血 또는 補中 혹은 清熱 등을 選用하는 것이다. 張從正이 經閉를 治療한 네 가지 病案으로부터 살펴보면 그는 이 법을 이미 實積經閉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虛熱經閉에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法則이 不同하니 虛熱을 治療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輕涌”, “輕吐”한 것이고, 둘째, 원래 出血症狀이 있는 자는 吐法을 禁用하며, 셋째, 吐下한 후에는 마땅히 “補之以食”한 것이다. 張從正은 吐下 二法을 사용하면서 아울러 正氣를 살렸음을 알 수 있다.

(3) 不 孕

張從正은 대체로 婦人無子를 이해하기를 月經의 正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乃陰不升, 陽不降之故也²¹⁾”라고 하였으므로 “陽火盛于上, 而陰火盛于下”하여 不 孕이 된다고 하였다. 胸中의 痰實로 阻 隔하여 胃氣가 不通하면 陰陽升降이 失常하게 되는 흔한 原因이 되므로 먼저 涌한 후에 瀉하여 痰 實結滯를 去하고, 心火를 降하며 腎水를 益하는 것이 既濟의 道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張從正의 病案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張從正 본인은 이 법을 사용하여 不 孕을 치료하는 것을 매우 자신 있다고 하였으니 그는 말하기를 “余治婦人使有娠, 此法不誣.”라고 하였다.

주의를 기울여볼 만한 것은 不 孕症 治療의 病案 중 張從正은 鬼神病因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기재한 바에 의하면 한 婦人이 밤에

꿈에서 鬼神과 交하는데 무려 15년 동안을 不 孕하니 무당과 박수에게 기도하고 肌肉을 찌르고 뜬을 떠도 효과가 없었다. 張從正은 이것은 胸中에 痰 實한 것으로 꿈속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病氣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委命于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神에게 빌어 鬼神을 쫓는 방법은 放棄하는 것이라 하면서 三涌三泄三汗으로 病을 治療하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꿈에서 鬼神과 交하는 것은 역대로 鬼神으로 病因을 논하고 있었지만 오직 張從正은 鬼神은 病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객관적으로 病機를 해석하였으니 확실히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2) 治療技術 및 飲食療法의 사용

대부분 理論研究를 중시하던 古代 醫家들은 흔히 治療技術의 창조적인 새로운 사용은 소홀히 하였다. 張從正은 臨床에 있어 治療技術의 사용을 매우 중시하였으니 예를 들면 그는 鉞鍼을 內科病의 治療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喉部의 異物을 낚아채는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였다.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있어 그가 사용한 治療技術 또한 이와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乳汁不下를 치료하면서 그는 빗으로 乳 주위를 백여 차례 쓸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乳癰을 治療하면서 병든 乳上의 痛處를 100~200회 정도를 문지르면서 아울러 吹筭枝를 사용하여 乳孔을 뚫도록 하였다. 비록 현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측면에서 볼 때 吹筭枝를 사용하여 乳孔을 뚫는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여 乳汁 및 膿液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死胎를 治療한 하나의 病案이다. 이 病案에서는 한 婦人의 難産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胎兒의 手臂가 먼저 나와 助産하는 產婆가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이를 잡아당긴 결과 胎兒의 어깨가 찢어져 胎兒가 腹中에서 죽어 不下하며, 產婦는 面靑身冷, 大汗淋漓하여 상황이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張從正은 인식하기를 이때 만약 鉞이나 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效果가 미치지 못

19)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493.
 20)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439.
 21)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425.

할 수 있다고 보아 하나의 갈고리 같은 것을 준비한 후 이 갈고리의 끝을 끈으로 묶고 기름을 갈고리 위에 바른 후 産婦를 눕게 하여 바깥쪽으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는 좌우에서 한 사람씩 그 발을 잡아 고정시킨 연후에 준비된 갈고리를 産婦의子宮으로 밀어 넣어 갈고리에 사망한 胎兒가 걸리면 바로 이를 빼내 産婦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기계를 이용하여 死胎를 꺼낸 최초의 확실한 기재라 할 수 있으며, 橫位難産의 예후 판단에 대한 張從正의 단호한 처리 방법은 모두 매우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에는 오직 死胎를 꺼내는 것만이 子宮破裂을 防止하고 産婦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張從正이 胎兒를 꺼내기 위해 조작할 때 産婦가 취한 體位와 현재 産婦人科에서 조작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膀胱截石位와는 매우 비슷하다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것은 충분히 外陰部를 벌려 조작하기에 편하게 한 것이니 13세기의 醫家인 張從正이 이와 같은 식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진정 평범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飲食療法에 있어 비록 張從正이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張從正이 사용한 것은 그만의 특징이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養生當論食補, 治病當論藥攻.”이라 하였으므로 특별히 食補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食補와 藥攻을 서로 결합하여 病을 治療하였다. 예를 들면 白帶, 閉經, 不孕 등과 같은 病을 治療하는 경우 吐瀉한 후에는 모두 ‘開胃進食’, ‘補之以食’을 매우 강조하면서 아울러 葱白粥, 鯉魚湯 등과 같은 食補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婦人의 産後缺乳를 治療하면서 精豬肉, 豬蹄作湯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美味를 調和하여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食補한데 있어 ‘調和美味’를 강조한 것이 張從正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張從正이 孕婦의 便結을 치료한 醫案은 張從正이 飲食療法을 매우 영활하게 숙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婦人이 便秘가 오래되어 매번 懷孕하면 便結이 더욱 심해져 매 妊娠 3, 4개월 때 排便하느라 힘을 주어 墮胎하기를 이미 세 번이나 하였다. 이 번에도 懷孕한 지 3, 4개월 사이로 便結이 오래되니 張從正의 診療를 청하

였다. 張從正은 습관적으로 汗吐下 三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있었지만 본 例에서는 비록 便結을 治療하면서 攻下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産婦의 陰虛內熱한 상황에 들어맞도록 養陰滋液하는 飲食療法으로 治療하였으니 藥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蔬菜와 動物의 血을 장기간 食用하도록 함으로써 陰液이 生增하도록 하여 胎兒가 안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月을 다 채우고 태어나게 하였으며 이 躁病 또한 치유되게 하였다. 張從正의 飲食療法을 살펴보면 단순한 補助療法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요한 治療方法이 되니 이 또한 현재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4. 李杲

李杲는 元代의 名醫로 어렸을 때는 儒學을 학습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醫學에 뜻을 두었다. 李杲의 스승은 張元素로 그 또한 혁신을 주장하는 최고의 醫家였으며, 新方과 古方に 모두 능통한 것으로 이름이 나있었다. 李杲는 이러한 學風을 계승하였으며, 감히 學術에 있어서도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 한 방면으로 그는 張元素가 중시했던 臟腑辨證, 溫補에 중점을 두고 攻下는 삼가하였던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그가 醫業을 행할 때는 兵亂之世로 백성들의 생활이 극히 困苦하고 精神은 恐懼하며 勞役이 매우 중하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脾胃의 元氣가 엄중히 손상되어 각종 內傷病證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 두 가지는 李杲의 學術思想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李杲의 學術思想의 핵심은 ‘脾胃學說’이다. 그는 脾胃는 元氣의 근본이 되고, 脾胃의 升降運化 기능은 곧 人體精氣 升降運化의 樞紐가 되어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하였다. 升降에 있어 李杲는 더욱 ‘升’에 편중하여 升이 있어야 降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病因에 있어서도 그는 脾胃가 상하게 되면 元氣가 不足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百病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病機에 있어서도 元氣와 陰火는 一升하면 一負한다고 강조하여 만약 元氣가 不足하면 陰火가 홀로 盛하게 되고, 元氣가 充足되면 陰火는 스스로 斂한다고 하였으며, 治療에 있어서도 그는 脾胃의 調理에 중

점을 두었으니 溫補脾胃와 益氣升陽을 중시하였다. 人參, 黃芪 등과 같은 健脾益氣하는 약물과 升麻, 柴胡 등과 같은 升提하는 약물을 즐겨 사용하였다. 아울러 陽氣를 升發하면서 陰火를 降納하는 이른 바 甘溫除熱은 후세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婦人科 疾病에 대한 李杲의 論述은 매우 많지는 않아 단지 經閉, 崩漏, 帶下病, 半產 등 4종의 病을 論述하였다. 그 중 經閉에 관해서는 理論은 있지만 處方은 없고, 半產에 대해서는 단지 誤治만을 논하였다. 論述이 비교적 상세하고, 理論과 治療法 및 治方이 가장 잘 드러난 學術思想은 崩漏와 帶下病 두 가지이다. 아울러 일련의 특색 있는 方藥을 제시하였으니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氣虛下脫의 理論이 後世에 미친 영향은 崩漏下血의 類에 그치지 않고 婦人科 기타 病種의 病機까지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1) 脾胃虛損 氣血下脫으로써 崩漏를 논함.

李杲는 崩漏는 火에 속하고 오래된 崩은 化하여 寒이 된다고 하였다. 그 “脾胃內傷, 百病由生”의 관점은 崩漏라는 病을 논술하는데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元氣와 陰火의 관계에 대한 논술은 바로 崩漏라는 病을 相火와 心火로써 論述하는 病機와 脾胃를 大補함으로써 論治하는 통일된 理論의 기초가 되었다.

이른 바 相火는 腎中の 火이다. 李杲는 崩漏와 같이 經漏不止하는데 色紫黑, 夏月에 腐肉하듯 臭氣가 있고 겹하여 腰痛이나 臍下痛, 寒熱往來, 四肢困熱, 心煩不得眠, 心下急, 脈沈細而數疾, 或沈弦而洪大有力한 것은 脾胃虛損으로 “由脾胃有虧, 下陷于腎, 與相火相合, 濕熱下迫”한 까닭이므로 治療는 “宜大補脾胃而升舉血氣²²⁾”하여 脾胃의 氣를 上升하고 下陷하지 않도록 하면 腎中の 相火는 下熾에 이르지 않고 濕熱은 능히 消하게 되어 崩漏는 곧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른 바 心火는 七情內傷이나 혹은 貴하였는데

후에 賤하게 되거나 혹은 富裕하였는데 후에 가난해지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心이 鬱鬱하면 心氣가 不足해지고 心火가 大熾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形證이 나타나지 않는다. 火가 血脈에 旺하면 脾胃가 손상을 받아 飲食失節하는데 이 때에는 經水가 불시에 下하거나 或斷或續하거나 혹은 暴下不止하게 된다. 이 마음의 病은 마땅히 마음으로 治療하고 脾胃의 病은 곧 藥으로 治療하여야 하므로 李杲는 반드시 精神治療와 藥物治療를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여 “治當先說惡死之言勸諭, 令拒死而心不動, 以大補氣血之藥舉養脾胃, 微加鎮墮心火之藥治其心, 補陰瀉陽, 經自止矣²³⁾.”라고 하였다.

經候가 오래도록 不調하다 下漏不止하는 것은 前陰의 氣血이 이미 下陷한 것에 속하니 당연히 寒證에 속하는 바 “假令當是熱證, 今下焦久脫, 化爲寒矣.”라 하면서 人身의 氣를 升浮하는 것은 오직 穀氣만이 上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此病久沈久降, 寒濕大勝, 當急救之, 瀉寒以熱, 除濕以燥, 大升大舉, 以助生長, 補養氣血, 不致偏竭²⁴⁾.”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大升大舉’할 것인가에 대해 李杲는 매우 명확하게 “用風藥以勝濕, 此便是大舉大升, 以助春夏二濕之久陷下之至治也.”라고 제시하였으니 다음의 세 가지 ‘升陽湯’ 및 하나의 ‘涼血湯’은 李杲가 崩漏를 治療하는 代表方이라 할 수 있다.

(1) 升陽除濕湯

女子의 漏下惡血이나 혹은 暴崩不止, 水漿之物을 多下하며, 겹하여 困倦短氣, 脈緩而弦急, 按之洪大를 治療한다. 이는 脾胃가 虛損하면 心火가 乘한 까닭이니 治療는 마땅히 除濕去熱, 益氣升陽한다. 處方은 酒洗當歸, 獨活 各五分, 蔓荊子 七分, 防風, 炙甘草, 升麻, 藥本 各一錢, 柴胡, 羌活, 蒼朮, 黃芪 各一錢五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去熱한다고 하였지만 處方은 寒涼清熱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李杲는 이와 같은 經血不止는 당연히 근원을 찾아 그 本經을 治療하고자 함이다. 그 本은 胃가 下陷

22) 李杲 : 蘭室秘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636.

23) 李杲 : 蘭室秘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636.

24) 李杲 : 蘭室秘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639.

하여 氣가 下를 迫하므로 血이 暴崩한 것이니 治療는 마땅히 脾胃를 益하여야 하니 “于補氣升陽中 加血藥便是也”하면 心火의 亢은 스스로 退하게 된다.

(2) 益胃升陽湯

柴胡, 升麻 各五分, 炙甘草, 當歸身, 陳皮各一錢, 人參, 炒神曲 各一錢五分, 黃芪 二錢, 白朮 三錢, 黃芩 少許로 구성되어 있다. 李杲는 “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라고 인식하였으므로 崩漏下血을 治療하는데 먼저 胃氣를 補함으로써 生發之氣를 돕도록 하였으니 곧 甘은 능히 生血하는 것으로 이것이 陽生陰長의 이치인 것이다. 李杲는 이 方證에 있어 風을 사용하여 濕을 勝하는 從權의 法으로 인식하였으니 이 方은 甘을 사용하여 補血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본을 治療하는 方劑인 것이다.

(3) 升陽舉經湯

經水不止, 口渴, 鼻眼乾燥, 脈數疾을 治療한다. 舉指하는데 弦緊하거나 혹은 澁하고 右尺脈이 空虛한 것은 氣血이 俱脫한 것이며 陽은 欲去하고 陰은 浮躁한 것이니 治療는 “當溫之, 舉之, 升之, 浮之, 燥之, 此法當大升浮血氣, 切補命門之下脫也.”한다. 處方은 肉桂, 白芍藥, 紅花 各五分, 細辛 六分, 人參, 熟地黃, 川芎 各一錢, 獨活根, 黑附子, 炙甘草 各一錢五分, 羌活, 藥本, 防風 各二錢, 白朮, 當歸, 黃芪, 柴胡 各三錢, 桃仁 十個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粉末로 하여 매번 三錢에서 五錢을 복용한다. 이는 崩漏下血로 血去하여 陽脫한 重症이므로 大劑溫陽益氣함으로써 治療한다.

(4) 涼血地黃湯

婦人의 血崩을 治療하는데 腎水가 虛하여 相火가 旺하므로 迫血妄行하는 崩漏이다. 處方은 黃芩, 荊芥穗, 蔓荊子 各一分, 黃柏, 知母, 藥本, 細辛, 川芎 各二分, 黃連, 羌活, 柴胡, 升麻, 防風 各三分, 生地黃, 當歸 各五分, 甘草 一錢, 紅花 少許로 구성되어 있다. 이 處方에서는 黃芩, 黃柏, 黃連, 地黃, 知母 등과 같은 苦寒涼血藥을 사용하였으니 이로 보면 李杲는 溫補를 즐겨 사용하면서 아울러 寒涼清熱藥을 배제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處方은 李杲가 血崩을 治療하던 대표 方劑하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處方의 작용은 不同한데 二補, 一溫, 一清하여 各類의 不同한 證候에 적용되지만 네 處方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바로 祛風除濕升提하는 藥을 加한 것으로 柴胡, 升麻와 같은 二味는 네 處方에서 모두 활용하였으며, 防風, 蔓荊子, 藥本, 羌活은 세 處方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뜻을 보면 첫째, 陽氣를 升舉함으로써 下陷한 血을 救하고자 함이요, 둘째, 除濕健脾함으로써 生化의 源을 助하고자 함이다. 다른 여러 가지 方劑의 예를 들면 柴胡調經湯, 黃芪當歸人參湯, 當歸芍藥湯 등도 모두 升舉陽氣, 除濕健脾하는 方法이 나타나 있다. 이 법은 氣虛下陷으로 攝血하지 못하는 崩漏에 확실히 훌륭한 效果가 있다. 이 외에도 李杲가 제시한 精神의 鬱結을 化解하고 환자의 情緒를 疏導하는 것은 장기적인 情緒鬱結, 心情不暢한 환자에 대하여 이 또한 훌륭한 보조 치료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陽虛寒濕으로 白帶를 논함.

李杲는 帶下를 論하면서 대체로 白帶가 많다고 하였다. 李杲가 帶下를 治療하는 方證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寒證을 겪하고 있으니 固眞丸證에서는 臍腹冷痛을 말하였고, 助陽湯證에서는 陰中如冰을 말하였으며, 當歸附子湯證에서는 臍下冷痛을 말하였고, 調經固眞湯證에서는 陰戶中寒을 말하였으며, 延胡苦棟湯證에서는 陰冷大寒을 말하였고, 桂附湯證에서는 不樂大寒을 말한 것 등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酒煮當歸丸證으로 이 證에는 白帶下注, 腰已下如在冰雪中, 火烤厚綿而猶感寒冷, 面白如枯魚, 肌肉瘦削, 小便與白帶長流, 或不自禁, 嘔惡便難, 食不下, 脈沈厥緊而澁, 按之空虛, 或洪大而澁, 按之無力을 볼 수 있다. 이는 확실히 寒證을 갖추고 있으므로 李杲는 이를 “三陽眞氣俱虛欲竭”이라고 하였다.

李杲는 白帶는 항상 血崩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니 崩이 오래되면 寒으로 化하고 다시 亡陽되므로 白滑한 物이 下流不止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李杲의 觀點을 보면 白帶病은 虛寒에 속한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類의 寒濕白帶가 때로 虛熱의 象이 나타날 수

있으니 固眞湯證에서 目中溜火, 齒皆惡熱飲, 痛하면 黃連을 細末하여 셋으면 그친다고 하였다. 이는 脾胃氣虛下陷으로 인하여 肝中陰火가 上溢한 까닭이므로 白帶의 治法 또한 溫陽散寒, 益氣升提를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

『蘭室秘藏·婦人門』에는 열 개의 帶下治療方이 있어 여덟 개의 白帶治療方과 두 개의 “赤白帶下”治療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用藥하는데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 李杲가 白帶를 治療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두 溫陽散寒이나 혹은 溫陽益氣를 위주로 하는 것이니 즐겨 사용한 藥物은 附子, 良薑, 乾薑, 肉桂 및 人參, 黃芪이다. 둘째, 陽氣를 升擧하는 것을 중시하였으니 대다수의 處方은 많거나 적거나 升擧祛風하는 藥이 加味되어 있는데 가장 常用한 것은 柴胡이고, 다음으로 防風, 升麻, 藁本 등이다. 白帶를 치료하는 方에서 이러한 類의 藥物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下陷한 陽氣를 升擧하면서 아울러 風藥으로써 勝濕한 것이다. 셋째, 李杲의 治帶方에는 寒涼藥을 사용하고 있으니 黃柏, 黃芩, 生地黃과 같은 類이지만 모두 ‘因用’하거나 ‘向導’하기 위한 것으로 용량은 극히 적어 많은 溫熱藥 중에 配伍되어 있다. 넷째, 除濕을 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大辛熱으로써 瀉寒水하고 風藥으로 上升하여 勝濕한 외에도 또한 收斂燥濕藥을 겸함으로써 그 濕을 枯하게 하였으니 常用되는 것은 白龍骨, 白石脂, 白葵花 등이다.

固眞丸으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李杲의 治帶方의 특징이 나타나 있으니 이 處方은 黃柏, 白芍藥 各五分, 柴胡, 白石脂 各一錢, 白龍骨, 當歸 各二錢, 乾薑 四錢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杲는 이 處方에 스스로 注하기를 “以酒制白石脂, 白龍骨以枯其濕, 炮乾薑大熱辛瀉寒水, 以黃柏之大寒爲因用, 又爲向導. ……以柴胡爲本經之使, 以芍藥五分導之. 恐辛熱之藥大甚. 損其肝經, 故微瀉之以當歸身之辛溫, 大和其血脈, 此用藥之法備矣²⁵⁾.”라고 하였다.

李杲는 또한 세 개의 外用方을 제시하였으니 오래도록 治療하여도 낫지 않은 白帶를 治療하고자

함이었다. 세 개의 處方은 勝陰丹, 回陽丹, 坐藥龍鹽膏로 구분되는데 모두 溫經散寒, 收斂除濕, 祛風行氣, 活血破瘀하는 藥物로 구성되어 있다. 勝陰丹은 坐藥龍鹽膏를 기초로 하여 다시 行竄하는 藥을 加味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藥物의 작용 및 烈성은 매우 강하다. 먼저 坐藥龍鹽膏를 사용하는데 藥力이 약할 때 다시 藥物을 加味하여 만든 勝陰丹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處方은 모두 陰道坐藥으로 藥物을 “爲細末, 煉蜜爲丸, 如彈子大, 綿裹留系在外, 內丸藥入陰戶內, 日易之.”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李杲는 溫陽益氣, 除濕升提하는 법으로 陽虛寒濕의 白帶病을 治療하였는데 확실한 治療效果를 갖추고 있었으며, 후세의 帶下治療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더욱이 白帶가 綿綿하고 無色無臭하며 겸하여 畏寒困倦하는 자에 대한 治療法은 지금까지도 臨床醫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李杲가 제시한 調補脾胃, 益氣升提의 治療方法은 후세 婦人科 疾病을 治療하는데 있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氣虛崩漏, 陽虛白帶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脾胃氣虛 및 氣虛不攝으로 야기된 病證 예를 들면 月經不調, 月經前後諸證, 妊娠轉胞, 產後發熱, 惡露不絕, 陰挺 등의 治療에도 사용되고 있다. 李杲의 名方인 補中益氣湯이 비록 『婦人門』에서는 취급되지 않고 있지만 現今의 婦人科 臨床에서의 사용은 매우 높은 方劑이다. 李杲의 『脾胃論』은 확실히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있어 常用되면서도 有效한 治法이라 할 수 있다.

5. 朱震亨

朱震亨은 元代의 名醫로 李杲보다 늦은 시대에 활동하였다. 어려서는 儒學을 공부하였으며, 성년 이후에 醫學을 공부하였다. 醫學을 공부하는 것이 비록 늦었지만 여러 醫家들의 장점을 널리 잘 취하였다. 그의 스승은 羅知悌로 劉完素에게 배웠으므로 朱震亨은 劉完素의 學問을 심득하였으며, 또한 張從正 및 李杲의 說을 私淑하였다. 각 醫家들의 영향 하에 본인의 臨床經驗을 쌓아갔으며, 당시 사회에 香燥한 藥物을 남용하는 폐단을 목격하

25) 李杲 : 蘭室秘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637.

고서 朱震亨 자신의 學術思想을 형성하였다. 朱震亨의 醫學成就是 다방면에 이르렀으니 醫學理論 방면에 있어 가장 유명한 관점은 “陰常不足, 陽常有餘” 및 ‘相火論’이다. 그는 천지간의 모든 것은 動으로써 위주가 된다고 하여 “凡動皆屬火”라고 하였으며, 사람의 생명력이란 人身의 ‘相火’운동에 의지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相火의 動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妄動하게 되면 眞陰을 煎熬하여 陰虛케 하여 병이 된다고 하였다. 朱震亨은 人身의 陰氣는 “難成而易虧”하는데 相火妄動을 야기하는 원인이 많아 “陰常不足, 陽常有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理論에 근거하여 평소 保養하는 중에도 眞陰을 保養할 것에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治療에 있어서도 滋陰降火를 강조하고 辛溫香燥한 약물을 妄用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朱震亨은 臨床에서 주로 氣, 血, 痰, 鬱 네 가지로 雜病을 治療하는데 장기가 있었는데 더욱이 痰, 鬱에 대해 독자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는 痰證을 각종 雜病으로까지 널리 확대하여 “百病之中多有兼痰”이라 인식하였고, 鬱證을 氣, 血, 濕, 痰, 熱, 食의 여섯 가지로 확대하여 治療法과 治鬱法을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朱震亨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은 그의 기본적인 學術思想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먼저 그는 陰血易虧를 강조하고 胎前과 產後에 辛溫香燥로 이루어진 方藥의 남용에 반대하였으며, 妊娠病 및 產後病에 있어 血虧와 虛熱의 病機 작용을 중시하였다. 그는 月經病은 辨證治療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痰濕 病因으로 婦人科 疾病이 야기된다 하였으니 이는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轉胞와 產後 軟產道 損傷 등과 같은 病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朱震亨은 臨床經驗의 관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으니 독창적인 사상을 지닌 醫家라 할 수 있다.

1) 陰血易虧를 강조하고 香燥의 남용을 반대함.

朱震亨은 宋代 醫家들의 “婦人以血爲本”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였지만 “血屬陰, 易于虧欠”이라 인식하여 본래 쉽게 保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治療

原則은 “必須補其陰血, 使無虧欠²⁶⁾”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따라서 朱震亨은 宋代 『和劑局方』에 있는 일련의 辛溫香燥한 藥이 위주로 구성된 通用方의 남용에 반대하였으며, 이러한 類의 方劑를 복용한 후에는 “積溫成熱, 香竄散氣, 服者無不被禍, 自非五臟能言, 醫者終不知覺, 及至變生他病”하여 後患이 무궁하다고 하였다.

그의 『局方發揮』 및 『格致餘論』 두 가지 책에는 모두 네 개의 治療處方에 대한 예가 기재되어 있으니 不孕證을 治療하는 神仙聚寶丹 및 秦桂丸, 產後病을 치료하는 五積散 및 黑神散이다. 朱震亨은 인식하기를 婦人의 體內 氣血이 平和하고 陰陽이 협조하여 樂하면 有子한다고 하였으며, 不孕證은 본래 陰血不足으로 인하여 陽精을 攝하지 못한 까닭이라 하였다. 神仙聚寶散 및 秦桂丸은 모두 辛溫香竄한 藥物이어서 陰血을 더욱 耗損하여 體內的 陰陽平衡失調을 야기하여 懷孕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病도 야기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侄女가 이 丸을 복용하면 비단 懷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背癱이 생긴다는 예를 들어 說法을 펴면서 이러한 類의 香燥한 丸藥을 남용하여 不孕證을 치료하는 危害를 설명하였다. 朱震亨은 또한 婦女의 產後는 모두 陰血不足에 속하여 원래 寒邪가 없는데 外感이 없는 경우 辛溫發散하는 五積散을 쉽게 사용해서는 않되니 진일보 陰血을 耗散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黑神散에 있어 朱震亨은 인식하기를 진정 汚血이 있고 體怯하며 寒한 경우 數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生產은 하나의 자연 과정이기에 產婦에게는 약간의 瘀血內停이 있고 약간의 新血不足은 있기 마련이니 일반적으로는 調理가 마땅하면 用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黑神散은 溫熱이 過하여 體內에 寒이 없는 경우 사용하면 熱火를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기에 無益有害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局方』의 유행이 대단하여 產後에 溫熱을 과용하는 폐단이 형성된 상황 하에서 朱震亨의 이러한 관점은 확실히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26) 朱震亨：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1994，p. 952.

2) 月經不調의 辨證治療를 중시함.

月經不調의 辨證에 대해 宋代 醫家들은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 대다수는 經期 및 經量을 중시하였으나 朱震亨은 月經不調의 辨證에 대해 經色과 經質의 변화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아울러 氣와 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血爲氣之配, 氣熱則熱, 氣寒則寒, 氣升則升, 氣降則降, 氣凝則凝, 氣滯則滯, 氣清則清, 氣濁則濁²⁷⁾.”이라 하였으며, 經色은 마땅히 火紅한 것이 정상이라 하면서 “往往見有成塊者, 氣之凝也. 將行而痛者, 氣之滯也. 來後作痛者, 氣血俱虛也. 色淡者, 亦虛也. 錯經妄行者, 氣之亂也. 紫者, 氣之熱也. 黑者, 熱之甚也.”라고 하였다. 治療는 반드시 자세히 辨證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寒熱相混한 경우 熱을冷이라 하여 溫熱한 方劑를 사용하면 禍가 되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月經不調에 관한 辨證 중 經色이 紫黑한 것은 熱에 속한다는 관점은 후세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朱震亨의 臨床經驗에서 나온 것이니 臨床에 있어 月經過多나 혹은 崩漏過多, 鮮血이 시도 때도 없이 배출되는 것, 쉽게 紫色이나 혹은 黑色이 형성되면서 經血이 過多한 것 또한 熱證에서 많이 나타나니 확실히 紫黑한 것을 寒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痰’ 病因을 婦人科 疾病에 끌어들임.

前代 婦人科 疾病의 病因 중에는 흔히 妊娠病 및 產後經病에서 더욱 痰을 언급하고 있는데 朱震亨에 이르러서부터 ‘痰’ 病因을 婦人科 疾病으로 귀납하기 시작하여 하나의 흔히 볼 수 있는 病因으로 보았으며, 月經病, 帶下病 및 婦人雜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까닭에 化痰燥濕하는 治法이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귀납된 것이다. 朱震亨의 婦人科 痰病論은 비교적 『金匱鉤玄』 및 『丹溪心法』의 두 著書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이는 丹溪의 친필은 아니지만 朱震亨의 學術思想과 臨床經驗이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무릇 婦人의 痰多한 體質은 대체로 體

肥氣虛하다. 月經病에 있어 痰多하면 月經色淡過期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經血이 때가 아는데 下多하기도 하며, 또한 經閉不行을 야기하기도 한다. 治療는 二陳湯이나 導痰湯으로 化痰燥濕하며, 겸하여 熱로 下多하면 黃連, 白朮을 加하고, 壅滯不下하면 川芎, 當歸를 加한다. 帶下病에 있어 胃中の 痰積이 膀胱으로 流하면 白帶가 되니 마땅히 半夏, 南星, 蒼朮, 椿皮, 海石으로 化痰燥濕하며, 重者는 吐法을 겸용함으로써 提氣涌痰한다. 婦科雜病에 있어 痰濕이 壅滯하여 脂膜이 子宮을 閉塞하면 不孕을 일으킬 수 있으니 治療는 마땅히 導痰湯으로 逐痰開閉한다. 이러한 理論 및 治法은 모두 明清代까지 훌륭히 계승되었다.

4) 產前의 清熱養血과 產後의 大補氣血

朱震亨은 『格致餘論·胎自墮論』에서 “推原其本, 皆因于熱, 火能消物, 造化自然. 病源乃謂風冷傷于子臟而墮, 此未得病情者也²⁸⁾.”라하여 墮胎의 대부분이 “墮于內熱而虛者于理爲多”라고 하였으므로 白朮煎湯에 黃芩末을 下하여 胎動下血을 治療한다고 제시하였으니 白朮의 補氣로써 生血하고, 黃芩의 清熱로써 止漏한다. 『丹溪心法』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產前當清熱養血”한다 하였으니 安胎하는데 用藥은 “白朮, 黃芩爲妙藥也.”인 것으로 黃芩을 사용하여 능히 安胎하는 것은 “產前宜清熱, 令血循經而不妄行, 故能養胎²⁹⁾.”한 까닭이며, 黃芩, 白朮의 두 가지 藥으로 구성된 安胎方은 본래 劉完素의 處方이지만 朱震亨의 理論을 통하여 세간에 성행하였으며, 臨床에서 安胎에 사용하면 확실히 훌륭한 治療效果를 가지고 있다.

產後에는 “當大補氣血爲先, 雖有雜證, 以末治之.” 하니 이 原則은 『金匱鉤玄』과 『丹溪心法』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原則에 근거하면 發表, 祛風, 過利小便, 過用寒涼은 마땅하지 않다. 產後發熱과 같은 경우 “一應寒苦并發表之藥皆不可用”이지만 補血益氣함으로써 治療하는 것이다. 熱이 輕한 자는 茯苓을 加하여 그 熱을 淡滲하고, 熱이

28)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926.

29) 朱震亨 : 丹溪心法-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1222.

27)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932.

重한 자는 大劑補血氣하는 藥 중에 乾薑을 加하여 “入肺和肺氣, 入肝分引血藥生血”함으로써 去熱한다. 비록 후세에 각종 구체적인 治法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아니지만 “當大補氣血爲先, 雖有雜證, 以未治之”와 같은 原則은 후세 産後病의 治療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5) 여러 가지 婦人科 疾病의 독창적인 견해

朱震亨의 『格致餘論』에서는 여러 가지 婦人科 疾病의 독창적인 견해를 살펴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膀胱損傷

『難產胞損淋瀝論』에서 朱震亨은 “常見尿胞, 因收生者不謹, 以致破損而得淋瀝病, 遂爲廢疾³⁰⁾.”이라 하여 그는 이 病의 病因, 症狀 및 損傷部位에 대해 모두 상당히 자세하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귀하다 볼 수 있는 것은 이 病 治療에 대한 朱震亨의 생각이다. 그는 인식하기를 이는 肌肉破損에 속하는 것이니 外를 보완하게 되면 胞가 비록 腹에 있더라도 또한 治療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 바 大補氣血을 사용하면서 活血하는 法을 약간 佐하여 胞로써 胞의 血肉을 補하는 營養藥物을 결합하여 1개월 사용하면 胞가 自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朱震亨의 이러한 法은 修補術이 나타나기 전 흔히 常用되는 通淋, 收斂 등에 비하여 더욱 효과적인 일종의 治療方法이라 할 수 있다. 峻補氣血하여 人體의 회복 능력을 증강시키면 傷口가 愈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朱震亨이 제시한 다른 일종의 견해는 곧 이러한 종류의 治療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稍遲緩亦難成功”할 때 이니 확실히 대단한 견해라 할 수 있으며 陳舊한 瘡口에 사용하는 保守治療의 效果는 긍정적이며 좋다고 할 수 있다.

(2) 轉胞

朱震亨 이전에는 이 病의 病因이 매우 적어 “胞爲胎所墮”라는 論述이 명백하였지만 朱震亨은 이

병이 妊娠이 病因이 됨을 명쾌하게 해석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治療의 사고가 나타날 수 있어 “胎若舉起, 懸在中央, 胞系得疏, 水道自行³¹⁾.”이라 하였다. 朱震亨이 채용한 治療方法은 大劑補氣養血하는 藥物을 煎服한 후에 手指로 探喉하여 催吐하는 것이다. 嘔吐로 인하여 腹中 氣機가 上提하면 胎 또한 上提할 수 있어 膀胱의 압박을 해제하여 小便이 自出하는 것이다. 『名醫類案』에는 다시 朱震亨의 한 가지 醫案을 기재하고 있으니 말하기를 한 孕婦가 懷孕한 지 7개월이 되어 小便不通의 병이 되었는데 여러 의사가 利하지 못하고 小腹急脹하면서 脈은 細弱하였다. 朱震亨은 인식하기를 이는 곧 氣血虛로 그 胎가 乘載하지 못하여 胎가 膀胱의 下口를 압박하여 소이 小便이 出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補藥을 사용하여 升提하면 아마도 效果가 太慢하여 도리어 小腹急脹이 증가하니 “遂令穉婆, 以香油抹手, 入產戶, 托起其胎, 溺出如注, 脹急頓解³²⁾.”하는 것이다. 연후에 다시 大劑量의 補氣升提하는 藥物을 쓰면 훌륭히 治療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排尿를 촉진시키는 방법의 원칙은 모두 增大한 子宮을 들어 올려 膀胱에 대한 압박을 緩解하는 것이다. 導尿術이 출현하기 전 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效果가 있는 急한 것에 대한 治療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乳癌

朱震亨은 ‘爛岩’이라 칭하여 우선 먼저 비교적 명확하게 乳癌이라는 병을 제시하였다. 그는 “肝氣橫逆, 遂成隱核, 如大棋子, 不痛不痒, 數十年後方爲瘡陷, 名曰爛岩. 以其瘡形嵌凹似岩穴也, 不可治矣³³⁾.”라고 하였으니 乳癌 症狀에 관한 서술이 상당히 정확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豫後에 대한 평가 또한 사실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節에서는 朱震亨이 乳癖과 初期乳癌에 대해 混淆하

30)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927.

31)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927.

32) 江瓚 :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p. 328.

33)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 927.

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감별 수단이 부족했던 古代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III. 結 論

醫家の 門戶는 金元時代에 나누어졌다고 하였을 만큼 金元時代에는 前代의 醫學成就를 기초로 여러 가지 독특한 견해를 지닌 醫學理論과 治療方法 등이 창조적으로 발전되었으며, 각자의 臨床經驗과 觀點이 각기 달랐던 까닭에 특색 있는 學術流派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著者は 金元時代 醫學學派 중 후세에서 대표적인 醫家로 칭송받고 있는 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 등의 金元四大家의 婦人科 疾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劉完素는 주로 寒涼한 藥으로써 月經病을 辨治하였고, 濕熱病機로써 帶下病을 論하면서 清熱除濕法을 활용하였으며, 潤燥通滯함으로써 妊娠病을 치료하고 寒溫을 병용함으로써 產後病을 治療하였다.

2. 張從正은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祛邪의 目的으로 吐法과 下法의 응용을 강조하였으며, 臨床에서 治療技術의 獨창적인 사용을 매우 중시하였고, '養生當論食補, 治病當論藥攻.'이라 하여 食補를 즐겨 사용하면서 食補와 藥攻으로 病을 治療하였다.

3. 李杲는 脾胃虛損, 氣血下脫로써 崩漏를 論하여 升陽除濕湯, 益胃升陽湯, 升陽舉經湯과 涼血地黃湯을 주로 사용하였고, 陽虛寒濕으로 白帶를 논하였으니 李杲의 調補脾胃, 益氣升提法은 후세 婦人科 疾病의 治療에 광범하게 응용되어 氣虛崩漏, 陽虛白帶 뿐만 아니라 各種 脾胃氣虛 및 氣虛不攝으로 야기된 月經不調, 月經前後諸證, 妊娠轉胞, 產後發熱, 惡露不絕, 陰挺 등의 病證에 多用되고 있다.

4. 朱震亨은 陰血易虧를 강조하여 胎前과 產後에 辛溫香燥한 方藥의 남용을 반대하였고, 妊娠病 및 產後病에 있어 血虧와 虛熱의 病機 작용을 중시하였으며, 月經病의 辨證治療를 중시하는 한편 痰濕病因으로 婦人科 疾病이 야기된다고 하여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參考文獻

1. 江 謙 :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2. 孔健民 : 中國醫學史綱,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金斗鍾 : 東西醫學史大綱·序論, 서울, 探求堂, 1990.
4. 楊醫亞 主編 : 中國醫學史,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5. 洪元植 編 : 中國醫學史·序文,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6. 劉完素 : 傷寒直格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7. 劉完素 : 素問病機氣宜保命集-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8.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9. 劉完素 : 黃帝素問宣明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0. 李杲 : 蘭室秘藏-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1. 張從正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2. 張志斌 : 古代中醫婦產科疾病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13. 朱震亨 : 局方發揮-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4. 朱震亨 : 丹溪心法-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15.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